

# 수메르의 도시문명: 〈길가메시 서사시〉를 중심으로



강사: **이경규** 교수

계명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일문학 석사학위,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에서 독일문학 석사학위, 뮌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매일신문 문학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Viel Spass mit Deutsch』(독일어 교재), 『덕한 사람들』(공저), 『낭만주의와 삶의 문학』(공저), 독문학, 인문학, 독서·글쓰기 관련 논문 등이 다수 있다.

최초의 것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눈길이 간다. 뭔가 순수하고 원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것은 없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텍스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인류 최초의 문학으로 통한다. 19세기 후반까지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간주된 창세기보다 최소한 1000년은 앞선 것이다. 최초의 문학이라고 해서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길가메시는 BC 2600년경에 실존한 우루크의 왕이다. 이 서사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거의 다 들어 있다. 사랑, 죽음, 우정, 신, 자연, 문명 등등. 텍스트는 최초의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살아온 인간들의 관심과 고민이 담겨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최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오래된 도시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수메르의 우루크(Uruk)를 말한다. 우루크는 수메르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전성기에는 5~8만 명이 살았다고 한다. 그 정도의 도시란 당연히 의식주, 사회 조직, 관습, 법, 종교 같은 삶의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강연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고대 수메르의 도시 문명, 즉 그 도시인들의 삶과 문화를 추적하는 데 할애된다. 그야말로 추적이고 많은 경우 상상력에 의존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온전히 고증된 내용이 많지 않고, 작품 자체가 오랫동안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합·편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4,000-4,500년 전에 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바, 우리들의 지적·역사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인간의 보편적 존재 방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